



광남일보





광주경총-주광주중국총영사관 협력 모색
한국원난기업연합회 협약 후속 조치



‘담양쌀’, 2년 연속 프랑스 식탁 공략
정철원 군수 “쌀산업 경쟁력 강화”



강진, 지역활력 제고 국·도비 확보 ‘가속도’
올해 3000억 확보 목표...부서별 상황 점검



배드민턴 안세영, 인도네시아오픈 ‘정상’
결승서 왕조에 2-1 역전...국제대회 5관왕

조간 제7858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윤력 5월 14일)

■ 대통령실 ‘AI 수석실’ 신설...국정 핵심 아젠다로

광주, AX실증밸리·시범도시 조성 ‘탄력’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 등 2단계 사업 ‘청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하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주시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광주시는 국가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이미 구축한 데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와 시범도시 조성 등을 공약하면서 2단계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에 AI (인공지능) 수석을 두는 내용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AI 미래기획 수석실’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첨단 기술 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 미래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 수석실 신설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 대통령이 공약한 ‘AI 3강 도약’의 첫 단추가 켜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내 갑작스런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

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산업’의 육성은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제1호 공약으로 AI 대전환 (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자신의 SNS에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글을 올린 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발표된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AI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AI와 관련해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확보한 GPU는 엔비디아 H100급 기준 2000장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푸르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휴일을 맞아 8일 오후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푸르름을 더해주는 가로수길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멈춘 공장, 끊긴 하늘길...“정부가 나서야”

시, 금호타이어 화재·국제선 운항중단 피해 대응 촉구

도, 홍수 피해 되풀이...지방 하천 국가관리 전환 요구

광주·전남이 직면한 복합 재난과 경제 위기를 놓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통령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한 대량 휴직 사태,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지방하천의 반복된 홍수 피해 등 현장의 절박함을 호소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단순한 협조요

청을 넘어, “정부가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는 직언이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근로자 2000여 명이 휴직 중이고,

주변 상권과 지역민의 피해도 심각하다”며 “광산구 등과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만큼, 정부와 산업은행, 산업부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장 신축 등 장기적 복구 방안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지난해 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사고 이후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주민들의 해외 이동 불편과 관광업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선 임시운항이) 국토부 소

관인가”라고 반응하며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회의에서 지방하천의 국가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홍수 피해는 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랑구간에서 발생하지만, 지방하천은 정비 예산 부족으로 취약한 상태”라며 “21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76개를 국가배수영랑구간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주재한 전국 단위 안전치안 점검회의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지사가 영상으로 참석해 국가적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李 정부, 내각·대통령실 인선 속도

정책실장 김용범·정무수석 이상호 등 임명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날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 지명을 시작으로 빠르게 대통령실 비서관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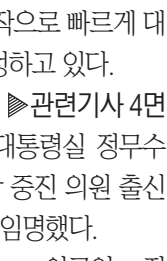
정책실장 김용범



정무수석 이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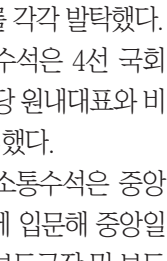
민정수석 오광수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사회수석 문진영



홍보수석 이규연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이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이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

책실장으로 임명했다.

무안 출신인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2면에 계속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채상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통과

대통령, 이번주 공포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수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대 특검법을 공포할 것이 유력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남일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시 2025. 6. 19.(목) 14:00~16:00

장소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대강당 (광주 북구 능안로 30번길 5)

주제 1부 - 표창원 작가 강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 표창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대상 초·중고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